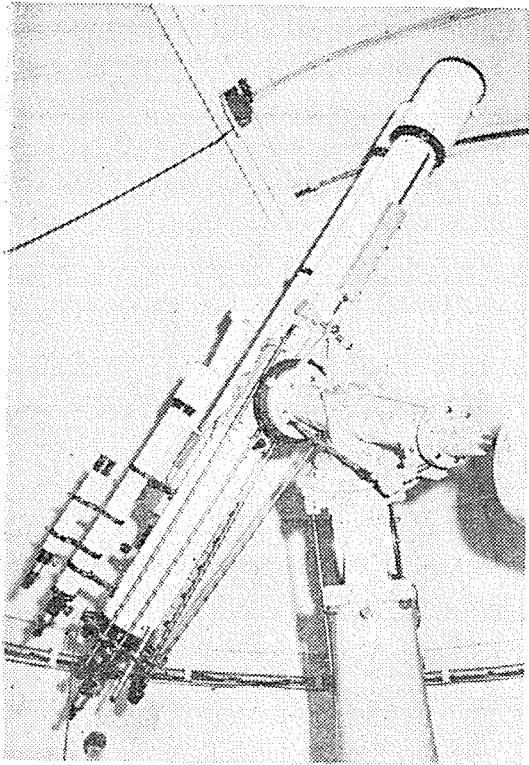


제 2 연화봉 천체관측 年中 60日

전파 망원관측소도 구상중

80年代 후반 天體觀測人工衛星 發射期待

국립천문대(대장 閔英基박사)는 지난 9월 29일 소백산 연화 제 2 봉에 천체 관측설비를 5년만에 준공한 바 있다. 경주 첨성대를 본뜬 첨성관에 20cm 태양망원경, 60cm 반사망원경 등, 光學 驗機器들, Mini Computer를 갖춘 各 研究室을 마련한 이 관측소에서 무엇이 이루어 질 것인가? 閔英基 박사에게 전망을 들어본다.



20cm 태양망원경

〈민영기박사 경력〉

민영기박사는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物理學科를 졸업하고(61년)미국 런슬러 대학교 대학원에서 天文學박사 학위를 받았다(71년 5월). 그동안 미국 런슬러대학교와 알라바마대학교 그리고 독일의 막스프랑크연구소에서 조교수와 연구원을 거쳐 7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립천문대 대장에 在職중이며 한국 천문학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소백산천체관측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지요?

관측소를 이용하고자하는 國內外 모든 天文學者들에 개방할 方針입니다. 관측소내의 모든 觀測施設과 機器를 活用하여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작정입니다.

학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인데 그럴려면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힘을 써야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방문자의 숙소시설이 미흡하고 죽령에서 관측소까지 7km에 걸친 進入路 도로 포장도 되어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용하기가 훨씬 수월해 질겁니다.

—소백산 제 2 연화봉이 관측소로서 어느정도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天體觀測所는 도시의 인공불빛이나 공해를 피해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이나 산 정상에 설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국 아리조나주의 커틀크 국립천문대는 사막 한가운데 관측소를 세워 관측일이 무려 300일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요.

처음에 관측소를 건설하기전에 몇군데 건설후 보지를 선정해서 답사와 예비관측을 실시했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해발 1,390m인 소백산 제 2 연화봉이 습기가 적고 쾌청일수가 많으며 기

은교차가 완만해 관측소 적격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측일수가 年 60일정도이고, 교통 등이 불편해 일부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해내겠느냐 하는 비판론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곳에 설치해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본같은 곳은 관측일수가 고작 40일정도라고 하니 이에 비하면 기상조건이 좋은편이라고 봐야겠지요.

—소백산 관측소의 시설은 외국에 비하면 어느정도의 수준인지요.

미국의 큰 대학교에 설치된 관측소수준이라고 봅니다. 일본 국립천문대 같은 곳은 일본전역에 다섯군데에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어 network를 연결해서 천체관측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세계적인 천문대는 보통 4백cm짜리 망원경을 갖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관측소의 시설이나 기기는 보잘것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만한 관측소라도 세웠으니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확장하여 좋은 연구업적을 내도록 노력해야겠지요.

—관측소 준공을 계기로 앞으로 활발한 천체관측연구가 진행될텐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측소가 준공되어 일단은 본격적인 천체관측 연구를 수행할 여건과 시설은 갖춰졌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과제는 이러한 천체관측기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좋은 연구결과를 낼수있도록 연구분위기조성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9명에 불과한 연구원수를 대폭 늘려야겠어요. 특히 외국에 나가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우수한 천문학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있는 학자들이 대우가 너무 뒤떨어져 귀국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될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천체관측업무를 원활히 수행키위해서는 현 공무원체제를 재단법인체로 한다든가 또는 大學에 소속시킨다든가하는 機構改編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은 앞으로 깊

이 연구해 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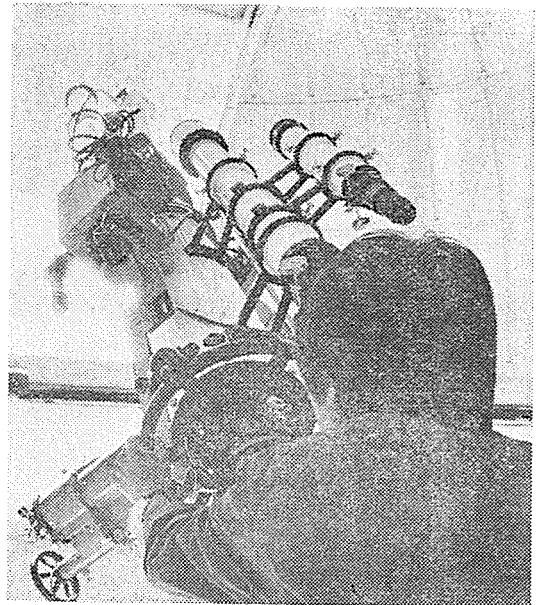
施設擴張面에서 본다면 앞으로 천문대 확장 5개년계획이 끝나는 83년까지는 48인치 반사망원경을 도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의 mini-computer를 대형 computer로 대치하는 문제도 고려중이며 최근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있는 電波望遠鏡을 설치할 電波觀測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電波觀測分野는 현재 선진각국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 분야인데 전파천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한것이 불과 20년전이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겠지요.

—최근 외국에서는 어떠한연구가 활발한지요.

미국, 소련 등지에서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대기권밖에서 天體를 관측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후반에는 인공위성 발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천체관측용 위성발사는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특히 80년대는 太陽發電所다 우주정거장이다 해서 우주가 우리생활과 가까워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비록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우주를 活用하기 위한 計劃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겁니다.



20cm 太陽망원경을 관측 시운하는 연구원